

주택담보 줄고 신용대출 '폭증'

정부 규제 강화로 주택대출막힌 일부 차주들 신용대출로 몰리면서 '풍선효과' 나타나

10월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꺾였다. 열흘이라는 사상 최장 기간의 추식 연휴로 주택대출을 받는 수요 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연휴 동안 개인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용대출은 폭증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5곳의 지난달 3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3조3242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6442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이 2조5887억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36% 가량 축소됐다. 최근 5개월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담

보대출 요건이 강화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된 측면도 있었지만 10월 추식 연휴가 한달의 3분의 1에 달할 만큼 길다보니 상대적으로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서울시 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8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한도를 40%로 강화한 바 있다. 다만 주택대출 둔화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해 아직까지 정부의 대책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신용대출은 울퉁불퉁한 채

수준으로 급증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1조 7729억원 늘어난 95조626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신용대출이 653억원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한달새 1조8382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명절 기간 동안 외식비나, 여행비, 가족 용돈·선물 비용지출로 늘어난 카드값 결제 등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불어났기 때문이다. 통상 명절을 앞두고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신용대출 규모가 줄지만, 명절 이후에는 늘어난 소비 탓에 다시 급증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에도 최장 닷새간의 추식 연휴를 보낸 9월 주요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증가액이

2445억원에 불과했지만, 다음달 증가액은 1조9170억원으로 뛰었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주택대출을 받을 길이 막힌 일부 차주들이 신용대출로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가계빚'을 잡기 위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추가로 마련된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는 향후 꺾일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 관계자는 "10월에는 추식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든 반면 신용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만큼 앞으로 대출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신규 창업자의 기본 소양 다지기

전북중기청, '스타트업 유니버설 페어링'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이 벤처·창업 주간행사의 일환으로 2일부터 3일까지 'Start-up 전북 2017 Universal Pairing' 행사를 열고 있다. Start-up 전북 2017 Universal Pairing은 전북중기청의 지원을 받아 벤처 창업 보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주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와, '전라북도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익산시 시니어기술창업센터' 등 3개 센터와, 전북도청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전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의 기관 교류 네트워크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행사는 각 센터 인큐베이팅 스타트업 기업대표와 전담인력, 지원기관 관계자 등 90여명의 'Scale Up', 'Value-Up'을 위한 내실화 및 내밀화 방안 도출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메인행사로 기획된 선배 창업자(푸르름 정상욱 대표)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도내 스타트업의 시장 안착 전략 및 성공적 실패 사례 공유 및 판로확보 등의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김민근 기자

이어서 '창업기업의 브랜드 빌딩과 통린 마케팅' 특강을 통해 시장에 안착하는 창업기업만의 특화 마케팅 전략을 구성하는 방안과, 통린(Long-Run)하는 기업의 내밀화 전략을 탐구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초기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석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Pairing 교류를 통해 신규 창업자들의 판로개척 및 신(新)시장 발굴 마케팅 전략, 완성성 있는 아이템 선택 방법 등에 대한 접근 전략을 강구하면서, 자연스레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수출주도형 강소 스타트업의 기본 소양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중기청에서는 미래 먹거리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관련 불합리한 규제와 창업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및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사태를 접수받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규제, 애로 해소를 연중 추진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김상조 '대기업 공익재단 운영 실태 전수 조사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의에서 열린 5대 그룹 전문 경영인과의 간담회에서 신설된 기업집단국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재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 조사 계획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건물 임대료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수익구조가 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는 없는지, 나아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기업집단국의 업무계획 일부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 측에서도 공익재단이나 지주회사 수익구조, 각 그룹의 특수한 이슈들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들을 관리할 것을 당부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기업집단국은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신설된 조직으로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집중적으

로 감시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인사 청문회를 통해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감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그간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던 주요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업집단국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미시적인 기업정보를 축적한 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기업집단국은 대기업들을 조사·제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시정보나 서면 실태조사, 시간처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유의미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조기 포착해 직권조사를 하고 법 위반행위를 확인했을 때 제재하는 것이 기업집단국의 본연의 역할"이라면서 "기업 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12월까지 4대그룹이 개혁의지를 안보이면 구조적인 처방을 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12월 중순 경이 되어야 비로소 공정위 전체 조직이 정상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가동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지역·산업 맞춤형 잠재청데이 개최

2017년 지역·산업 맞춤형 잠재청데이가 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다. 2일 전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전북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전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전북인자위)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훈련의 수로(예정)자 공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미니 취업박람회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주)하림, 다산기공(주) 등 도내 56개 기업에서 참여해 현장 면접을 통한 채용을 진행하며, 간접 참여 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향후 1개월 동안 공동 훈련센터를 통한 취업연계활동을 지

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직자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이력서 클리닉과 잡멘토링, 무료 사정촬영 등을 진행하는 '취업컨설팅존'과 전북도 공동훈련센터가 참여해 기관별 교육훈련을 홍보하고 취업 연계를 진행하는 '훈련센터존' 등에서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 2017년 지역·산업 맞춤형 잠재청데이는 보다 많은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www.jbhrd.or.kr)를 통해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관련 자세한 문의는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063-288-8755)으로 하면 된다. /이상민 기자

KT, Y수능 데이터 무제한 페스티벌 진행

KT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맞아 수험생에게 6개월 동안 할인된 가격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Y수능 데이터 무제한 페스티벌을 1일부터 다음달 2월28일까지 진행한다. Y수능 데이터 무제한 페스티벌은 기존에 이동통신사가 6만원대에 제공하던 LTE 데이터 무제한을 매월 1만4300원 할인해 6개월 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다. 선택약정할인 및 프리미엄 가족결합 할인 등 함께 적용 받는 이용자는 1만원 대에 데이터 무제한

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대학수학능력 시험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1998~2000년생 고객이라면 다음달 2월 말까지 Y24 49.3~65.8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이 KT 매장 및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매월 최대 1만4300원 Y수능 요금제인 적용 시 5만1500원에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가입월을 제외하고 6개월 간 이용 가능하다. 월초 가입하는 경우 최대 10만원의 통신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뉴시스

NH손보, 농업수입보장보험 판매

NH농협손해보험은 포도와 양파, 마늘 등에 대한 '농업수입보장보험'을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는 물론 시장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보험료의 50%는 정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며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포도 농업수입보장보험은 경북 상

주·영주·영천, 경기 화성·가평 등 5개 지역에서 이달 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해당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양파는 전남 무안·함평, 전북 익산, 경남 창녕·합천, 경북 청도 등 6개 지역에서, 마늘은 전남 고흥, 경북 의성, 경남 창녕, 충남 서산·태안,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등 7개 지역에서 가입 가능하다. /뉴시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북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